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오픈

서울시 13개 산하병원 최초로 지난 1월 17일(목)부터 2개 병동 중 90개 병상에서 환자안심병원 운영을 시작했다. '환자안심병원'에서는 병원의 책임 하에 간호사가 다인병상의 간호·간병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사회복지사도 투입돼 환자들에 대한 심리·경제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직접 보호하지 않고도 환자가 입원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환자안심병원'은 이러한 간병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내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6만원 이상,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200만원 수준인 간병료를 절약할 수 있다.

환자안심병원 이용은 진료 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 입원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1주일 연장이 가능하다. 환자가 많은 경우는 대기 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단, 소아, 산모, 정신질환, 장기재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자, 기타 보호자 상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등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의료원은 3월 초에 90개 병상을 추가 오픈하여 전체 다인병상(466) 중 39%인 180개 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이 신체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환자안심병원 운영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사업이 간병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델을 찾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상담실 개소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와 의료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울의료원은 지난 12월 26일(수) 북한이탈주민 상담실을 오픈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상담실은 서울의료원과 새조위가 함께 계획하여, 상담실 설치비용 및 사무집기 구입비용 전액을 서울의료원에서 지원했다. 상담실 개소식에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과 새조위(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신미녀 대표,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서울의료원 이용안내를 위한 병원 주요시설 투어와 앞으로 상담실 운영에 대한 실무자 간담회가 이어졌다. 상담실 위치는 의료원 중앙부 1층 안내데스크 뒤편에 마련되어 내원고객 모두가 쉽게 찾을 수 있다. 상담실에는 새조위에서 파견된 전문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의료전문상담사 1명이 배치되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다. 상담실은 북한이탈주민의 초진 환자 병원이용안내, 입원환자 및 퇴원환자 관리, 생활상담, 환자 서류관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담실 운영을 통해 병원을 이용을 기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종합상담실로서 역할도 함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서울의료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급여 1종, 2종에 한하여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으며, 외래진료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50%, 입원진료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80% 지원한다.

우리은행, 저소득가정 어린이 환자를 위한 의료비 및 헌혈증 전달

서울의료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저소득가정 어린이 환자 지원을 위한 의료비 및 헌혈증을 전달 받았다. 전달식은 지난 12월 27일(목) 오후 3시에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김민기 의료원장, 이순우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은행이 후원하는 이번 전달식은 총 2,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가정 어린이 환자들의 수술비와 진료비로 전

액 사용된다. 또한 우리은행에서는 '릴레이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헌혈증 493장과 투병 중인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작성한 희망카드도 이날 함께 전달되었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사회에서 소외 받을 수 있는 어린이 환자를 위해 마련된 뜻깊은 선물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의료원은 더욱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사랑의 인술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우리병원
친절스타
모범직원을
소개합니다.



고객지원팀 김현모

먼저 항상 우리 서울의료원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는 김민기 의료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일원으로서 제 소명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수상은 저에게 무한한 기쁨이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 직원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원장님께 직접 배지를 수여 받은 것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을 내어 병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 소명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호부 전해진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호사가 되어 최고로 보람되었던 것은 사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간호사라는 이름 앞에서 지치고 좌절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작은 도움으로 기뻐했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자신에게 더욱 더 용기를 줄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무심사팀 하승현

2006년 입사한 후 지금까지 그리 모범적이지 않은 저에게 '모범직원' 수상의 영광을 주신 임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 간 친목 및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저희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과 보호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부 이성분

부족한 저에게 이런 상을 주시니 기쁘기도 하지만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번 모범직원에 선정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는 중환자실 식구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자들 곁에서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소개 된 서울의료원

● 신문

[환자안심병원 언론보도] 총 91건 - 주요 보도매체
조선일보(2013.1.18): 서울의료원, 간호사가 24시간 간병 서비스
중앙일보(2013.1.18): 간병인 필요 없는 병상 180개 첫 선
동아일보(2013.1.18): 24시간 간병 '환자안심병원' 서비스
연합뉴스(2013.1.17): 서울의료원, '간병부담 없는' 환자안심병원 운영
매일경제(2013.1.17): 보호자, 간병인 필요없어요
머니투데이(2013.1.17): 月 200만원 간병비 부담없는 병원이 있다고?
국민일보(2013.1.17): 무료 간병서비스 지원, '환자안심병원' 이용 방법은?
경향신문(2013.1.17):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운영
한겨레(2013.1.18): 무료 간병 '환자안심병원' 개원

● TV(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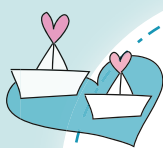
- JTBC 주말드라마 '무자식상팔자'(2013.1.13)
- SBS 주말드라마 '내사랑 나비부인'(2013.1.20)
- SBS 일일 드라마 '가족의 탄생'(2013.1.30 / 2013.1.31)

● TV(시사 및 교양)

- KBS 2TV '생생정보통'(2012.12.24): 매운맛 중독
- MBN 뉴스(2013.1.13): 저체온·동상 '응급처치' 중요
- KBS 1TV 뉴스9(2013.1.18): 심층취재-생명을 구하는 4분
[환자안심병원 언론보도] 총 10건
- KBS 1TV 뉴스9(2013.1.17): '보호자 없는 병동'... 간병 부담 던다
- SBS 뉴스(2013.1.18): 간호사가 환자 간병까지...'안심 병동' 등장
- YTN 뉴스(2013.1.17 / 1.18): 보호자 없는 병동 첫 선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방안
- JTBC 뉴스(2013.1.17): 치료, 간병 모두 책임지는 병원 등장
- 채널A 뉴스(2013.1.18): 간병비 부담 덜어주는 '안심병동' 문 열어
- 뉴스Y(2013.1.17): "간병? 고민하지 마세요" 환자안심병원 첫 운영
- TBS 뉴스(2013.1.18):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 EBS 뉴스(2013.1.17): 서울의료원, '보호자 없는' 안심병원 운영
- 메디컬TV(2013.1.26): 간병인 없는 환자안심병원

● 라디오

- 방 송 사: TBS 교통방송 95.1Mhz
- 프로그램: 라디오를 켜라! 나선홍입니다. / 코너명:『서울의료원 건강주치의』
- 기간: 1월 1일 ~ 31일
- 출연: 정형외과 김준엽, 내과 변경민, 가정의학과 김무영, 안과 김현진, 산부인과 육지형



“직원
가족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사이드

1월 장유현(내과 전문의, 소화기센터장 겸직)
이진자(병동간호팀장 임명)
왕미숙(간호교육팀장 임명)
박미숙(외래간호팀장 임명)
유경순(72병동 파트장 임명)
변점숙(71병동 파트장 임명)
황선숙(91병동 파트장 임명)
조은희(신생분만 파트장 임명)
김지명(공급 파트장 임명)
방순식(간호교육 파트장 임명)



교육 연수

해외 변경민(1월 10일~16일, 미국) Josephson/Wellens Complex Arrhythmias 참석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 1.1. 최임광(행정부원장) 윤상희(약제팀) 최석현(의료정보팀) 김중삼(병동간호팀) 이수동(총무팀)
홍성은, 오수미, 한새로미, 이자선, 김지혜, 최하나(병동간호팀) 임진초, 김태옥(특수간호팀)
- 1.2. 신연희(병동간호팀) 1.7. 고영선(진단검사의학과)
- 1.21. 유영림, 최주경, 이수현, 이원화, 최문희, 허은별, 장소연, 박보연, 정성희, 김시내, 이성윤, 서주희, 김유진
이채리, 김혜린, 최미지, 정유리(간호부) 안영임(진단검사의학과) 심미숙(영상의학과) 유정진(약제팀)
강미자(총무팀) 최철성(강남분원)
- 1.23. 안진아(간호부) 1.24. 최병용(내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1.4. 김소라(진단검사의학과) 1.5. 김도희(식당)
- 1.20. 안영임(진단검사의학과) 1.21. 황윤주(식당)
- 1.31. 신준섭(응급의학과) 이수경(외래간호팀)
조은영(병동간호팀)



결혼을 축하합니다.

박진우(교육연구부, 1월 26일)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서울의료원 1등급

서울의료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2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한 반부패·청렴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는 지난해 12월 27일(목)에 발표했다.

평가항목은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활성화 ▲종합청렴도 ▲청렴도 개선정도 등 7개 부문을 심사해 1~5등급으로 분류했다. 서울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2등급 기관 4곳(안동의료원, 대구의료원, 포항의료원, 서산의료원)과 함께 반부패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진료팀은 2013년 의료기관평가인증 본 조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1차 자체평가를 1월 8일(화)부터 1월 11일(금)까지 진행했다. 1차 자체평가의 목적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비 원내 지침의 숙지 여부와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4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평가는 의무부원장(구역: 응급실, 병동부 4층, 8층), 진료부장(구역: 외래부,

2013년 시무식 개최

서울의료원은 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2일(수) 4층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괄목할만한 경영성과를 이뤄냈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고 전하며 “2013년에도 우리병원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단계 발전한 모습들을 만들어 선도적 공공병원으로 거듭날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협력 해외 보건의로 교류 지원사업, 의료 기관인증, 서울의료원 후원회 사단법인화, 환자안심병원 운영 등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직원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과 직원



역량 강화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을 밝혔다. 시무식이 끝난 후에는 임원직과 전직원이 악수를 나누며 한해의 시작을 서로 격려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 대비 제1차 자체평가 실시

병동부 9층, 10층), 교육연구부장(구역: 중환자실, 병동부 11층~13층), 감염관리실장(전구역 감염관련 분야), 총무부장(전구역 시설안전분야), 적정진료팀장(진료/간호 외 전 부서), 약제팀장(전부서 약제 분야)이 각각 담당구역을 맡았다. 1차 평가결과는 1월 14일(월) 평가회를 거쳐 공지되었고, 2차 평가는 1월 29일(화)부터 2월 1일(금)까지 진행됐다.

2012년도 창의제안 포상실시

기획경영팀은 2012년도 창의제안서비스에 제출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그룹웨어를 통해 소개했다. 이번 창의제안 포상은 지난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추진사례에 대한 부서포상과 개인 제안 실적에 대한 평가로 발생한 마일리지를 반영한 개인포상으로 구분된다. 최우수부서는 총무팀, 우수부서는 영상의학과, 적정진료팀, 장려부서는 92병동, 기획경영팀, 아토피천식센터, 원무심사팀, 응급의료센터, 진단검사의학과, 특수간호팀이며, 포상금은 각각 100만원, 70만원, 50만원이다. 개인 포상 기준은 제안 건수에 따른 포상(제안 2건 이상)과 마일리지(마일리지 50점 이상)에 따른 포상으로 지난해 12월 26일(수)까지 창의제안서비스에 집계된 실적으로 선정되었다.

전직원 정례주간 소통회의 실시



함께 진행된다. 첫 회의는 1월 10일(목)에 ‘환자안심병원’에 대한 운영계획과 ‘심혈관센터’ 현황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에 관한 운영계획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총무팀(내선 7081~2)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4층 대강당에서 ‘전직원 정례주간 소통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임직원의 소통경영 확대와 주요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폭 넓은 정보공유를 위해 정례적인 회의를 통하여 더욱 발전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계획되었다. 회의내용은 환자안심병원 운영, 의료기관인증평가 등의 주요 현안사항, 우수 의료진 소개 및 신기술 등 정보제공, 의료계 소식, 홍보, 기타 병원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다룬다. 진행은 주제별로 각 부서에서 자유롭게 설명하고 공지하며, 회의 후에는 임명장 수여 및 표창도

강남분원 내과 김성은 과장, ‘KBS2 TV 생생정보통’ 출연



내시경검사를 통해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고 앞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주의해야할 사항도 알려주었다. 이번 방송은 지난해 12월 24일(월) 저녁 6시 10분에 방송되었으며, KBS 홈페이지 (<http://www.kbs.co.kr/>)를 통해 무료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KBS2 TV에서 저녁시간대 방송되는 교양정보프로그램인 ‘생생정보통’에 강남분원 내과 김성은 과장이 출연하였다. ‘생활의 중독-매운맛 중독’ 코너에 출연한 김성은 과장은 매운맛에 중독된 출연자를



SBS 내사랑 나비부인 촬영

SBS 주말드라마 ‘내사랑 나비부인’ 촬영이 서울의료원에서 지난 1월 19일(토)에 진행됐다. 염정아, 박용우 주연의 이번 드라마는 국내 최고 톱스타였지만 사건사고로 안타팬을 갖게 된 주인공의 좌충우돌 시대살이를 담아내었다. 이번 촬영장면은 서울의료원 2층 복도 및 비상계단에서 촬영됐다. 서울의료원은 시민들이 즐겨보는 드라마를 통하여

원내 진료시설 및 편의시설을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촬영을 결정했다. 촬영은 진료시간 이후로 하여 최대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여 진행됐다. 서울의료원 촬영분량은 1월 26일(토) 주말저녁 8시 45분에 방송됐다.

외래약국 오픈

약제팀은 1월 14일(월)부터 외래 약국을 오픈하여 현재 야간 약국에서 수행하던 원내 조제 환자의 투약 및 복약지도업무를 1층 외래 약국에서 시행합니다.



- 업무 시간: 월~금 오전 8시30분 ~ 오후 5시30분
※토요일은 현행대로 지하1층 야간 약국에서 수행
- 장소 : 1층 외래약국 (내선 7346번)
- 업무 담당 : 약사1명, 공익근무요원 1명
- 업무 내용
 1. 원내 조제약 투약 및 복약 지도
 2. 원외처방전 재 출력 및 사후 관리
 3. 외래처방에 대한 문의 처리

TBS 교통방송 라디오, 『건강주치의』 코너 서울의료원 의료진 출연 방송일정

- 방 송 사: TBS 교통방송 95.1Mhz
- 프로그램: 라디오를 켜라! 나선흥입니다. 코너명: 『서울의료원 건강주치의』
- 방송시간: 주중 월~금요일 아침 6시20분~23분
- 내 용: 질병의 원인과 치료, 예방 등의 알기 쉬운 의학정보 제공
- 2월 출연일정



방송일정	2월 4일 ~ 8일	2월 11일 ~ 15일	2월 18일 ~ 22일	2월 25일 ~ 3월 1일
진료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비뇨기과
전문의	이해우	장세연	김지은	이신영

※상기 방송일정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동부병원 소식]

동부병원, 화성영아원 감사패수상



지난 1월 18일 오후 6시 30분에 한양대 동문회관 1층에서 화성영아원 보육원이 주최하는 ‘제9회 사랑의 하모니’ 행사가 열렸다. 이날 화성영아원 측은 동부병원(원장 김경일)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감사패는 대표로 소아청소년과 염해원 과장이 참석하여 받았다. 몇 년째 꾸준히 방문하여 아이들을 진료해주고 봉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다. 동부병원은 6년째 봉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는 동부병원이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중이염, 감기, 폐렴, 아토피 등을 진료해주고 공공의료팀과 협의하여 약도 무료로 제공하였다. 작년부터는 아이들을 위해 독감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에도 아이들과 함께하며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부는 내빈들과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되었고, 2부는 아이들의 재롱을 뽐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동부병원은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공공의료 사업을 진행하며 발전된 모습을 지역사회에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소식]

겨울방학 청계천 생태교실 운영

- 대상: 유아 ~ 성인 개인(가족) 및 단체
- 기간: 2013.01.09(수) ~ 2013.02.27(목) ※ 매주 수·목·토·일요일 운영
- 장소: 청계천 생태학습장(신답철교~중랑천 합류부)
- 이용료: 무료
- 내용: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 나들이와 함께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료 교육
- 프로그램
 - ▲생태연구소 전문가를 초빙해 겨울철새를 관찰하는 '철새야 안녕'(토요일 오전 10시~12시)
 - ▲낙엽, 가지, 열매 등 자연물로 겨울풍경을 만드는 '자연물꼭지락교실'(토·일 오후 2시~4시)
 -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기후변화교실'(목·일 오전 10시~12시)
 - ▲청계천 동식물의 겨우살이를 공부하는 '청계천 생태탐방'(수요일 오후 4시~6시)
- 모집정원: 30~40(명)
- 신청제한: 1회에 1 ~ 40명까지 신청가능
- 접수방법: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
- 접수기간: 2013.1.1(화) 10:00 ~ 2013.2.26(화) 12:00
- 취소기간: 이용일 1일 전까지
- 문의전화: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02-2290-6859)
- 선별방법: 선착순

설치미술가 전수천의 사회임기 전시회

- 전시개요: 소통을 주제로 한 사회임기 전시회
- 기간: 2013.1.18(금) ~ 3.3(일) ※ 월요일 휴무
- 관람시간: 오전 10:00 ~ 오후 06:00
- 입장료: 무료
- 장소: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드림갤러리
- 주최: 서울특별시
- 문의: 120(다산콜센터)



[신규직원 소개] 새로운 서울의료원 가족을 소개합니다.



외과 장용석 과장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서울의료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외과 과장 장용석입니다. 저는 1991년부터 16년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병원 외과에서 교원으로 재직하였고 전문분야는 대장항문외과였습니다. 1994년 8월부터 1년간 미국 뉴욕에 있는 마운트사이나이대학병원 대장항문외과에서 방문연구원(교환교수)으로 장기연수를 하였고 1997년에는 일본 게이오대학 병원 외과에서, 1998년에는 미국 네바다의대 생리학교실과 영국 세인트마크병원 등에서 단기연수를 하였습니다. 1999년 9월부터 6년간은 순천향대학교병원 외국인진료소 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07년 2월부터 6년 동안은 의사의 꽃이라는 외과개원의 생활을 하면서 의료일선의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 외과학회 상임이사(개원보직위원장), 대한검진의학회 학술부회장, 대한의사협회 편집, 교육, 배상심의, 광고심의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대장항문외과는 외과 3대(상부위장관외과, 간담체외과) 영역 중의 하나이며,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증가일로에 있는 대장암(결장암, 직장암)과 염증성 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외과수술 중 최다 건수로 알려진 치핵과 치질(치루, 치열) 등도 아울러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의사생활 30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대학병원 교수와 외과개원의로서 배우고 익힌 경험들을 토대로 서울의료원 외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나아가 서울의료원 전체가 더 나은 병원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직원 여러분들께서 저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도움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정신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의 진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병동 이화진 간호사

안녕하십니까, 이제 막 간호사 3년차로 접어든 92병동 이화진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간호가 누구를 위한 간호인가' 라는 의문들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방을 받고 수행하고 보고하고 이리저리 바빠서 뛰어다니면서 정작 환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환자를 파악하기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가장 귀 기울여야 하는 환자의 목소리를 너무 바쁜 나머지 소홀히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간호사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보호자와 간병인이 없이 간호사가 환자의 손과 발이 되어 좀 더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안심병동을, 그것도 제가 속해있는 이 병동에서 실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모두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실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주변사람들과 스스로의 의구심을 모두 불식시킬 만큼 우리 92병동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92병동 구성원 모두는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앞장서서 나섰고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은 더 이상 이상향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간호사들이 직접 나서서 전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들의 목소리와 세심한 부분까지 직접 듣고 살필 수 있었기에 환자들은 보호자가 없이도 안심할 수 있었고, 보호자들 또한 우리를 믿고 환자를 맡길 수 있어서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간호사로서 나의 최종 꿈은 사람이 사는 가장 낮은 곳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간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자들의 팔과 다리가 되어 보호자 없이도 안심할 수 있는 그날까지 환자들의 아픈 몸과 함께 아픈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